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의 특징

중국은 2001~2005년 사이에 추진하게 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105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월 9~11일 기간 중의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2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실시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이 어느 정도 안락한 상태(小康)에 도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지도부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 추진될 경제계획의 주된 목표는, 첫째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2010년의 GDP를 2000년의 두배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둘째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확립으로 국유기업이 국제경쟁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체제를 정비하며, 셋째로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도모함과 동시에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넷째로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효율 추구하고 전략적 구조조정 실시

중국은 경제의 고효율화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구조 문제는 주로 산업구조의 불합리, 지역발전의 불균형, 도시화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중국 경제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이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방향은, 첫째로 고비용, 저효율, 고오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둘째로 농업·공업·서비스업의 수준과 효율을 향상하고, 셋째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역간 산업 생산수준을 재조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넷째로 도시화의 점진적인 추진으로 도농간의 경제발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

<표> 10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 내용

1. 농업부문의 지위 강화	9. 인력자원의 집중 육성
2. 공업부문의 구조조정 가속	10. 인구와 자원 관리 대폭 강화 및 생태환경 보호 중시
3. 서비스업의 대폭 발전	11. 개혁 지속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4. 경제와 사회부문의 정보화 확대	12. 대외개방 확대로 개방경제 추진
5. 수리시설, 교통, 에너지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 대폭 확충	13.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정비
6. 서부대개발 실시	14. 국민생활 수준 향상
7. 도시화의 적극적인 추진	15.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8. 과학기술 수준 향상	16. 사회주의 민주적인 법질서 건설

본 시설의 확충과 생태환경의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

이번 5중전회(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10차 5개년 계획 건의는 내년 봄에 있게 될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되어 대표들의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건의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16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표>와 같다.

상기의 중점 추진 내용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을 만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화를 통한 대기업·그룹(集團) 육성

첫째로 공업부문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관한 것이다. 공업부문은 기술개발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에 의한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과 오염방지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기술개조 대상에 포함될 업종으로는 에너지, 야금, 화학, 기계, 자동차, 건축자재, 의류 등 경공업과 건설업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 업종의 핵심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 기업을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논리에 맞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가진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이나 그룹(集團)으로 육성하여 산업 집중도와 신상품 개발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과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그리고 중국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감안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도 지속발전시켜 나가되 노후 설비와 기술 등은 도태시키고, 과잉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은 생산능력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시장 진입

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채무상환이 곤란한 기업은 파산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현대화 건설을 위해 직접회로의 설계와 제조, 고성능 컴퓨터, 광전자소재 등의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의 산업화의 실현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개혁 가속화로 시장경제체제 확립

둘째, 대내 개혁의 가속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먼저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하여 국유기업이 시장의 주도세력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中大型 국유기업의 경우, 증권시장 상장, 외국투자기업과 합작 등으로 주식회사로 기업형태를 전환할 것을 장려하고, 중소 국유기업은 민영화 추진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개인기업 포함),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각종 소유 형태의 기업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격, 조세, 금리와 환율 등의 경제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동시에 확대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도 진작시킬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자율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기관투자가를 육성하여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또한 보험시장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개혁이 추진되게 된다.

개방확대로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셋째,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로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이 시기에 WTO 가입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의 자금, 기술과 관리경험을 흡수하여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과 서부대개발에 긴밀히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은행, 보험, 무역, 도소매, 관광 등 분야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점차 내국민 대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經濟特區, 上海 浦東新區 및 연해지역의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개방과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가간 경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국제화 경영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체인점, 전자상거래 등 유통과 대중교통 등의 분야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보, 금융, 회계, 컨설턴트, 법률자문 등 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크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광, 오락, 교육, 건강, 위생 등과 관련된 산업도 발전시키게 된다.

다섯째, 서부대개발¹⁾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부개발 추진은 먼저 향후 5~10년 기간 동안에 교통, 수리시설, 통신, 전력과 도시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야오우다루치아오²⁾(亞歐大陸橋)와 창장(長江)의 인접 도시 및 서남 항구 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이들 도시를 연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계획 기간동안 7%대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시행을 통하여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둘째로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동력으로 삼으며, 셋째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작금의 국내외 현실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이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실업자 증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일정수준(7%)의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건설을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효율을 제고시키고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방경제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1) 서부대개발은 1999년 6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서북 5개성의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이라는 좌담회에서 발언한 이후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음. 서부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重慶市, 內蒙古, 西藏, 寧夏와 新疆 등의 11개 省·市·自治區임. 이들 지역은 663만 평방키로미터로 중국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999년 기준 3억1,403만 명으로 전체의 25%를 점유하고 있음.

2) 동쪽의 시발역인 련윈강(江蘇省의 連雲港)에서 중국 서쪽 변경 역인 아라산커우(新疆의 阿拉山口)를 통과하는 대륙횡단 철도. 이 철도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게 됨.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강구 필요성 커

한편, 우리정부와 기업도 중국의 이러한 정책추진에서 시사점을 찾아 향후 개혁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의 진출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차 5개년 계획의 건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분야의 개방확대,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실시, 대륙횡단철도와 長江 인 근 서부 중심도시³⁾ 중심의 개발, 개방경제의 실시 등에 발을 맞추어, 우리기업들은 대중국 진출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진출의 후발주자로서의 우리기업의 입지를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정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민영화 방식과는 달리 주로 매각이나 임대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지분참여 방식을 통해서 중국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벤처캐피탈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미국의 NASDAQ과 같은 CHASDAQ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분야는 중국이 최근에서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개발 초기단계의 산업인데 반해, 우리 기업은 이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투자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은 중국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합작형태(joint venture)가 단독투자 진출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WTO 가입이 대외개방의 확대와 맞물려 그 동안에 실시했던 차별대우가 점차 축소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왔던 세제상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고, 다른 하

3) 서부대개발에는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省都를 포함하여 서부 모든 지역이 포함될 것 이나 그 중에서도 西安, 蘭州, 重慶, 成都, 昆明 등의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고 교통요지여서 서부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음.

나는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유통, 금융,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확대될 것인데, 우리기업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도·소매)분야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족쇄 역할을 해왔던 일부 규정들이 철폐될 것이 확실하다. 예상되는 규정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외환 과부족을 해결하도록 하였던 내용(외자기업법 제 18조, 중외합작기업법 제20조)의 폐지, 둘째, 원부자재 등 중국 제품의 우선 구매 요구 내용(중외합작기업법 제9조, 외자기업법 제 15조)의 폐지, 셋째, 수출의무 규정(외자기업법 제 3조)을 수출 장려로 조정, 넷째, 기업의 생산과 경영계획의 관련 부문앞 보고 요구(중외합작기업법 제9조, 외자기업법 제 11조)의 폐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실시는 WTO 가입이 임박한데다 세계 제2위의 외환을 보유한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부개발은 인프라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이 개방된 상태이고 서부 거점도시 특히 蘭州, 西安, 成都, 重慶 등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된 단계인 데다가 이들 지역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개방화가 늦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생산의 수직계열이 가능한 수개 기업이 동반진출함으로써 협상력의 제고는 물론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金周永】